



고천문도
디지털복원
전문가

오길순



우리나라 고천문도를 애기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오길순 씨. 천문학 전공자도 아니고, 과학사를 공부한 적도 없는 순수 아마추어이다. 단지 고천문도에 관심이 있어 취미로 삼은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오길순 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산청양수발전소. 이곳이 그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다.

“낮에 오셨으면 양수발전소 모습도 구경하시고 좋았을 텐데 이쁘네요. 이곳 발전소의 발전기를 비롯해 전기, 기계 설비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기계쟁이죠. 여기에 온 지도 벌써 3년 가까이 되는군요.”

오길순 씨는 30년 넘게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를 했었다. 발전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그였지만, 1997년 IMF의 칼바람을 맞게 된다.

“일도 할만큼 한 것 같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키워났고 해서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마음먹고 좀 쉬자 생각했는데 얼마 놀지도 못했어. 한 건설사에서 해외에 발전소 지을 일이 생겼다고 당장 짐 싸서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을 해외에서 일하고, 귀국해서는 다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게 좋더라고요. 그 동안 하지 못했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발전 관련 일을 하다보니 발전소가 생기는 곳이면 어디든 옮겨 다니며 근무를 해야만 했다. 그가 천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런 객지 생활의 영향이 적지 않다.

“87년에는 경남 밀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춘천이고요. 집에 한번 오려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꼬박 5시간을 통일호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또 열차를 타고 춘천으로 가야했으니까요. 자는 것도 한도가 있더군요. 그래서 시간 때 우기용 책을 사러 서점에 갔습니다. 그때 눈에 띄게 바로 현정준 선생이 쓴 『별·은하·우주』였습니다. 그 책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작은 문고판이어서 가격도 싼고, 제목이 뭔가 그럴 듯해 보여서 집어든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막연히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연히 집어들게 된 책 한 권이 지금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집어든 책 한 권

기차로 오며 가며 책을 읽고, 또 읽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보다 보니 재미도 있고, 뭔가 감이 잡히는

도도했다. 그러나 알아 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궁금 증들. 그때부터 서점을 찾아 '우연'이 아닌 '의도'를 갖고 천문학 책을 사 보기 시작했다.

"보니까 별들도 저마다의 위치가 있고, 별도 다 별이 아니고 항성, 행성 뭐 그런 게 있더군요. 그런데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이 많지 않아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일본 책을 한 권 봤는데, 동양 별 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런 걸 보면서 관심을 둔 게 그림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도면을 보던 습관 때문인 듯합니다. 그러다 어느 책에서 천상열차분야지도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길순 씨는 여기 저기 도서관을 뒤져서 천상열차분야지도도를 찾았다. 그리고 천문도 전체를 A3 용지에 나눠서 복사했다.

"귀중한 것이다 보니 관외대출은 안 되더군요. 그래서 여러 장으로 나눠 복사해 온 것을 가지고 와서 이어 붙였습니다. 그걸 바닥에 깔고, 위에 트레싱페이퍼를 올려놓고 별 하나, 글 하나, 하나 하나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설계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모르는 한자가 많다보니 글자는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한 장에 옮겨 벽에 붙여 놓으니 하늘이 한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 게 중에는 눈에 익은 별자리도 보였다. 이렇게 그런 천상열차분야지도도를 누군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중 나일성 박사를 찾게 된다.

"책을 보다보니 나일성 박사님이 눈에 띄더군요. 어렵게 주소를 찾아서 청사진으로 뽑은 천상열차분야지도도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찾아오라는 회신을 받았습시다. 얼마 안 있어 찾아갔죠. 갔더니 잘못된 부분을 빨간 볼펜으로 일일이 교정을 봐주셨더군요. 생각지도 않던 관심과 성의에 감탄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여러 학자분들과 교류를 갖게 되었습니다."

실업자가 된 기간동안 설계 프로그램인 오토캐드를 배웠다. 이것은 곧바로 고천문도에 적용되었다. 트레싱페이퍼로 옮기던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로 발전한 것이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컴퓨터로 작업하면서부터 너무 편해졌어요. 작업을 하다가 틀리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쉽게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다양한 용도로 변형도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제가 작업한 결과물을 보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도 되었고요."

오랜 세월로 손상되거나 헐어서 윤곽이 분명하지 않은 고천문도도 오길순 씨의 손을 거치면 깨끗한 디지털 천문도로 재 탄생한다. 고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디지털 천문도는 연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연구원들이 인터넷과 책에 실린 제 작업물을 보고 연락을 주십니다. 이런 이런 천문도를 논문이나 연구 자료로 쓸 수 있겠냐고요. 제 자료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게 합니다. 적지 않은 힘과 노력으로 만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재

산이지만, 누군가에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에 작은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요즘 오길순 씨의 관심은 고천문도를 떠난 것처럼 보인다. 고지도라는 새로운 취미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고천문도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끝이 없죠. 뭐가 알듯한데 항상 5%정도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이 한계를 넘는다면 취미가 아닌 일이 돼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새롭게 시작한 게 고지도입니다. 해보니까 재밌어요."

고지도 역시 오토캐드를 이용해 디지털화한다. 보통 지도 한 장을 컴퓨터로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한 달. 그러나 지도 하나에 대한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나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

고지도의 세계에 빠지다

"고지도는 천문도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리고 언어도 다양하죠. 영어나 한자면 그래도 낫습니다. 프랑스어나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의 언어로 된 지도는 완전히 암호문입니다. 게다가 글씨가 흐릿해서 보이지 않으면 다른 지도 자료를 찾아서 그 글씨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채워서 디지털 지도를 최종 완성하기까지는 2, 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안 보이던 글씨의 정체를 밝혀내는 건 마치 탐정 놀이를 하는 것처럼 아주 흥미 있고 재미 있는 일입니다."

지리산자락, 2평 남짓한 좁은 기숙사 방에서 생활하지만 그에게는 그리 답답할 것이 없다. 인터넷이 있어 전 세계 도서관을 내방 드나들 듯 훑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인터넷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을 가보면 대단한 자료들이 많아요. 인터넷 서점도 수시로 검색해서 고지도가 실렸을 것 같은 책은 구입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책에 실린 고지도 원본의 출처를 찾으면 보다 큰 이미지나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는지 편지를 보냅니다. 대부분은 실비를 보내주면 우편으로 자료를 보내주죠. 인터넷이 없었다면 이런 작업은 꿈도 못 꾸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자료가 좁은 방안에 가득하다. 최근에 작업한 세계 지도를 보니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단순 반복 작업의 극한을 보는 듯 하다.

"아마 이게 일이라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하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제 성격이 그렇고, 또 환경이 이러하니 하는 거죠. 고지도를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보면, 지도가 제작될 당시의 상황이나 세계사도 함께 공부하고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배우면서 만들어 가는 건 아주 재미있는 일입니다."

고천문도를 10년 넘게 했으니, 이제 막 시작한 고지도는 평생해 해도 다 못할 거라며 웃는 오길순 씨.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더 큰 즐거움일지도 모를 일이다.